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2월 8일(목)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설 명절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2/8, 목)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재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로써,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 개요

- (기부 주체) 개인(법인 불가) ▸ (기부 대상) 본인 주소지 제외 지방자치단체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 (혜택)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 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 원의 기부를 하셨습니다. 제도의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인별 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조정(500만 원→2,000만 원, 2025년 1월 시행)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끝>